

2017년 12월 8일, 한경면 금등리 금등리경로당, 이호순 조사.

제보자1: 김명식(남, 1941년생, 한경면 금등리)

제보자2: 고창오(남, 1934년생, 한경면 금등리)

- 줄거리: 마을에 들돌이 있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돌을 무시하고 그 동네를 지나가거나, 그 위에 앉았을 경우에는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몰려와 무례를 범하였다며 몰매를 때렸다. 그런데 힘이 센 장사가 마침 들돌 위에 앉았다가 같이 온 일행과 함께 몰매를 맞게 되었는데 들돌을 들고 물통 쪽으로 집어 던지는 바람에 위기를 면했다.

[조사자] 전설 잇인 장소가 잇우가?

[제보자1] 옛날에 우리 동네 사람이 팥에 가서 앓았어. 몰라가지고, 들돌인 줄 몰랑. 넘어가면서 앓았주게. 동네 어른들이 ‘왜 거기 앓았느냐’ 하면서 말을 허여. 들돌 들려지겠느냐 허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들돌 들렁 던져 불었어. 아, 이 사람 센 사람이구나. 그런 말이 있었습디다. 이름은 잘 모르고 들은 말.

[조사자] 힘이 경 센 사람들이 마을마다 흠뻑 잇입디다게.

[제보자2] 이제 말한 힘센 사람이 고○○입니다. 그분이 저 한라산 쪽에 옛날은 장사 지내다가 월림을 와서 힘이 세니까 한번 들돌에를 앓아 보라고. 힘이 세니까 저 들돌은 들을 것이다 행 앓으니까,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못 들으면 너는 죽는다 헛어. 꺾기 갔다 오던 일행이

“한번 그걸 못 들겠느냐. 너 힘세니까 들려라.”

그걸 들어서 옛날 우마. 물 있는 바로 우엿 들돌을 들어서 물통더레 집어던지니까 살아났다. 매를 안 맞고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옛날은 힘 자랑은 들돌을 들르는 거니까예.

- 핵심어: 들돌, 장사, 몰매, 물통, 한라산, 월림리, 힘, 우마, 팥